

천주교 부산교구

제 7 지구 중고등부 교사 연합회

우) 46563 부산광역시 북구 던천로 247번길 39 ☎ 051)343-6270 제7지구 중고등부 교사 연합회

문서번호 제7지구 중고등부 교사 제16-003호
 시행일자 2016. 10. 26.
 (경유)
 수신 제7지구 제위신부
 참조 담당수녀, 청소년분과장
 초-중고등부 교무, 자모회장

선			지			
결			시			
집	일자	. . .	결재공람			
	시간	:				
수	번호					
처리부서						
담당자						

제목 제7지구 청소년 자녀를 위한 생명과 책임의 성교육

칼을 주면 싸움을 배우고, 피리를 주면 음악을 배우는 것이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주는 대로 배우는 순진한 아이들에게 이 시대는 ‘스마트 폰, PC, TV’를 통해 포르노물과 성적 자극을 수없이 주고 있고, 그로인해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것은 ‘성적 음란함’과 ‘성적 문란함’입니다. 실제로 요즘 일상에선 70% 정도의 중,고등부 아이들, 90% 정도의 20-30대 청년들이 혼전 성관계는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염된 성의식과 성행위에 대다수가 중독이 되어, 오히려 오염된 것이 자연스럽게 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적인 음란함과 문란함의 책임을 아이들에게 물을 수 없습니다. 아이들은 그저 주는 것을 무방비 상태로 배웠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책임은 그렇게 매체를 통해 포르노물과 성적자극을 수없이 전달하고 있고, 그것을 방치하고 있는 어른들에게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이들이 정숙하고 정결한 문화와 교육환경 안에서 보호받기 위해선 무엇보다 먼저 부모와 교사와 지도자들의 의식적 깨우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공감하는 부모와 교사들을 위해 이 시대의 성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한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의식있는 많은 부모님과 교사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일 시 : 2016년 12월 7일(수) 20:00 ∞ 22:00
- 장 소 : 구포성당 성전
- 주 제 : 청소년 자녀를 위한 생명과 책임의 성교육
- 강 사 : ‘사랑과 책임 연구소’ 이광호 베네딕도 소장
- 대 상 : 7지구 초중고 교사, 7지구 유아부터 청소년 자녀를 둔 모든 부모
- 준 비 물: 간단한 필기구
- 신청기한: 2016년 11월 20일(주일)까지
- 접 수 : 각 본당 사무실 접수 후 구포성당으로 팩스발송(Fax 331-2620)

첨부#1. 신청서

제7지구 중고등부 교사 연합회 **정 부 원**
 지도신부 정 부 원 사도요한

